

개항장 원산과 일본 상인의 이주*

이 가 연**

【 목 차 】

I. 머리말	III. 원산 이주 일본 상인의 특징
II. 원산의 개항과 근대 무역의 확대	1. 원산의 일본인 인구변화 및 출신지별 구성
1. '원산진'의 개항	2. 일본인의 종사업종
2. 근대 무역의 확대	3. 유력 일본 상인
	IV. 맺음말

I. 머리말

개항은 조선 사회의 모든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개항장이었다. 개항장은 '개항'이라는 시간적 의미와 '장'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중첩된 곳이다.¹⁾ 개항장에는 '개항기'라는 시점과 '개항장'이라는 장소성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다. '개항기'라는 변혁의 시점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장소에는 기존의 토착민이 아니라 외부(외국)의 이주자들이 그 공간의 주도 세력이 되어갔다.

지금까지 개항장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 거점이라는 개항장의 본질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무역과 상품유통 구조의 변화 및 상업 활동, 그 속에서 한국 상인과 일본 상인의 대립과 갈등 등을 주로 다루었다.²⁾ 근대 식민도시의 초기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항장의 설치과정,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오미일(2008) 「개항(장)과 이주상인-개항장도시 로컬리티의 형성과 기원」,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p.44.

2) 개항기 대외무역의 변화와 일본인의 상업 활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하지영(2003) 『開港期 朝鮮商人과 日本商人간의 자금거래와 곡물유통: '兩民交涉債案'의 分析을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하원호(2006) 「개항 후 부산의 대외무역과 유통구조의 변화」, 『사람』 25, 수선사학회; 하원호(2006) 「한말 영산강 유역과 목포의 상품유통」, 『한국사학보』 23, 고려사학회; 김윤희(2013) 「1883~1905년 인천항 일본상인의 영업활동」, 『사람』 44, 수선사학회; 김동희(2014) 「진남포의 개항과정과 무역구조의 변화(1897~1910)」, 『역사연구』 26, 역사학연구소; 하원호·민원기(2015) 「개항기

조계지의 형태, 외국인 거류 구역의 확장 등의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³⁾ 그런데 한국 대부분의 개항장에는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핵심 지역을 선점하고 자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의 이주 및 在朝日本人 사회의 형성과 그 자치에 관한 연구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⁴⁾

본 논문의 지역적 배경인 개항장 원산은 환동해권의 주요 항구로 상업적 목적보다 군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항된 곳이다. 다른 초기 개항장에 비해 일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운수업, 창고업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 거래가 활발하였다. 청일, 러일전쟁 시기에는 군사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개항장은 근대 상품의 유통은 물론 새로운 문물과 사조가 유입되는 곳이지만,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개항이었기에 식민지배자들에 의한 기존 생활공동체의 파괴와 폭력을 일방적으로 체득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 식민지배자들의 중심에 일본 상인들이 있었다. 조선 개항 이후 일본인들은 그 상품가치성에 주목하여 빠르게 조선으로 도향하였다. 일본 상품의 반입, 미곡·자원 등의 일본 유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 대자본가·대지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조선은 일본인에게 있어 기회의 땅이었다. 어쩌면 일본의 식민지배체제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이주를 통해 그 물적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재조일본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주 초기 각 개항장에 설치된 거류지를 거점으로 경제적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제국주의의 주요한 속성은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원료시장과 상품판매시장의 확보에 있다. 제국주의의 실행 주체인 재조일본인, 그 중에서도 상인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속성과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다.

함경도 지역의 풍흉과 원산의 상품유통, 『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 3) 개항장 형성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현중(1975) 『한국개항장연구』, 일조각 ; 김용욱(1976) 『한국개항사』, 서문당 ; 손정목(1976) 『목포 및 진남포 개항-청일전쟁 이후의 도시의 변화』, 『도시문제』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손정목(1982) 『개항장·조계제도의 개념과 성격-한반도 개항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일지사 ; 손정목(1982) 『한국 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등.
- 4)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자치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준식(2005)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 『동방학지』 13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木村健二·坂本悠一(2007)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櫻井書店 ; 홍순권(2008)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 德間一芽(2010)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 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학교원 사학과 석사논문 ; 李東勳(2011) 『在朝日本人社會의 '自治'와 '韓國併合'-京城居留民團의設立と解體を中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9, 朝鮮史研究會 ; 차철욱·양홍수(2012)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연구』 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승(2014) 『근대 부산의 일본인 사회와 문화변용』, 선인 ; 이규수(2015) 『개항장 인천과 재조일본인』, 보고서 ; 오미일(2015)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사회와 지역 단체-원산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4, 역사문제연구소 ; 이동훈(2018)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에 관한 고찰』, 『일본연구』 29,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II. 원산의 개항과 근대 무역의 확대

1. ‘원산진’의 개항

조선과 일본은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이하 조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었으며 일본은 노골적으로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규에 의해 1876년 부산이 개항되었고 뒤이어 1880년 5월에는 원산, 1883년 1월에는 인천이 각각 개항되었다.⁵⁾

원산은 ‘조규’ 제5관에 의해 개항되었다. 개항이 되기 전 ‘원산진’이라 불리던 이곳은 조선 북쪽 동해안의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다. 그러나 원산은 함경도 남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하는 요충지로, 수도 서울로 나가는 길목이었으며 서북쪽으로는 평양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옛 날에는 기근에 대비하여 상평창을 두고 경상도 방면에서 미곡을 회송하여 이곳에 저장하였으며 풍년일 때는 이 곡식을 상인에게 파는 등 개항 이전부터 이미 상업중심지로서 알려진 곳이었다.⁶⁾ 또한 동해안의 유일한 양항으로서 풍부한 수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함흥 평야의 곡물, 강원도의 광물 등을 모두 집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원산은 환동해권의 국가, 일본, 청, 극동 러시아에게 있어서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직접 연결되는 곳이며 청은 상해를 거쳐 원산으로 수출입 무역을 하였다. 일본의 경우 원산 개항 당시 본국에서 부산을 거쳐 원산으로 향하는 통상 항로를 운영하고 있었다. 세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원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했는데, 특히 일본은 남하하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원산을 선점해야 했다. 러시아는 개항 이전에 이미 원산을 포함한 영흥만 일대를 Port Lazaref라고 불렀으며 영국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⁷⁾ 그렇기에 원산 개항은 처음 일본 군부 측에서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일본의 원산 개항요구는 통상의 목적도 중요하였지만 처음부터 러시아와 영국에 앞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원산의 군사적 중요성은 러일전쟁 시기 동해안 방면의 일본 방어의 중요한 거점이자 전장이 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처음부터 원산을 개항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영흥부 海口, 문천군 송전촌 灣口 등을 언급하다가 1879년 6월에 가서야 원산진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1878년 5월부터 일본 해군측이 측량선을 이용하여 영흥만 부근을 상세 조사·측량하고 낸 결론이었다. 일본 해군은 이때 원산진의 부두 설계까지 계획하였다.⁸⁾ 원산항은 1879년 8월 26일 개항

5) 이 조치는 ‘조일수호조규’ 제4관 말미의 ‘제5관에 기재하는 두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는 부분과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택한 후 지명을 지정할 것이다. 개항기는 일본력 메이지 9년 2월, 조선력 병자 2월부터 기산하여 20개월 후로 한다.’를 근거로 이루어졌다(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1964) 『舊韓末條約彙纂』上卷,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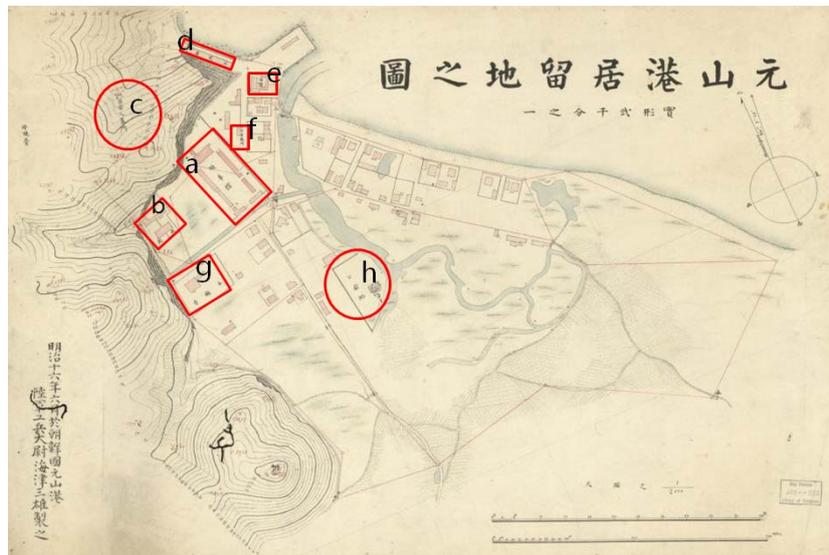
6) 元山府(1926) 『(日本海の商港)元山』, pp.22-23.

7) 奥平武彦(1937)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朝鮮社會法制史研究』,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文集, p.51.

8) 奥平武彦(1937)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朝鮮社會法制史研究』,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文集, pp.52-53.

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어 개항기일(1880년 5월 1일)과 거류지 설정의 대강이 결정되었다. 개항이 되기 전인 1879년 10월, 당시 일본 측 교섭 대표였던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는 관리관, 서기관, 일본상인 14명을 이끌고 원산에 상륙하여 일본인 거류 예정지를 시찰하고 도로의 개설, 부두의 축조, 하천 매립 등의 시설 계획을 미리 세웠다. 1880년 5월 1일 원산이 완전히 개항되었다. 5월 20일에는 미쓰비시기선회사의 秋津洲丸⁹⁾으로 일본영사, 서기 2명, 통역관 2명, 해군 군의관 2명, 경부 2명, 순사 30명, 승려, 상인, 직공 등이 원산항에 도착하였고 5월 23일 임시 일본영사관을 개설하였다.¹⁰⁾

개항장 원산은 앞서 개항한 부산의 형태와 닮아 있었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부산과 비슷한 규모인 약 10만평을 일본 단독 거류지로 하였다. 그 안의 조선인 가옥은 일본인들이 매수하여 철거되었다. 개항 초기 間行里程 또한 부산의 예에 따라 조선 里法으로 사방 10리에 한하였다.¹¹⁾



<그림 1> 원산항 일본거류지(1883)

해안선을 따라 일본인 거주지와 상업지가 늘어서 있고, 장덕산기슭에 영사관, 병원, 사찰 등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a: 영사관 b: 병원 c: 일본인묘지 d: 석탄고 e: 해관 f: 상법회의소 g: 동본원사 h: 공원지(신사)

* 출처 : Library of Congress Geography and Map Division Washington, D.C. 20540-4650 USA

한편 조선이 개항될 무렵 일본은 고도로 발달된 서양의 자본주의와 접촉하는 반면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일본 국내 경제 조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舊 제도 파괴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혼란은 정치·경제적 문제로 나타났고 일본은 국내의 여러 혼란을 조선으로 진출함으로써 타개하려 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육성을 위한 자본축적을 도모하고 대륙 침략을

9) 元山府廳 編(1936) 『元山府史年表』, 元山府, p.2.

10) 高尾白浦(1922) 『元山港』, 東書店, p.44.

11) 예외로 덕원부는 왕래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부산에서 동래는 왕래가 가능했다는 것과 같다.

위한 기지 확보를 위해서도 조선으로의 진출은 필수 불가결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은 조선에 강력한 정치·군사력을 행사하여 일본인의 진출과 그에 동반한 경제적 침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일본인들을 조선에 부식시키려고 쓰시마인에게 한정되었던 무역의 특권을 폐지하여 일반 일본인이 조선으로 도항하여 통상을 할 수 있게 하였다.¹²⁾ 일본정부에서는 당시 원산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하여 가옥 건축을 위한 ‘보조금 대부 규칙’을 제정하고 거류지¹³⁾ 내 택지는 제한된 평수를 무료로 대부하였다.¹⁴⁾ 개항과 동시에 원산 일본인거류지에는 미쓰비시[三菱]상회, 스미토모[住友]상회, 오키라구미[大倉組], 이케다구미[池田組], 이와이다구미[慶田組] 등 일본 굴지의 재벌이 지점을 설치하였고 영사관 및 관사, 병원, 사원, 물산진열소 등도 신설되었다. 금융기관으로는 제일은행 지점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민단이나 상업회의소가 설치되기 전 자치기관으로 港會議가¹⁵⁾ 설치되어 거류지의 하급 행정과 상행위에 관한 사무 일체를 협상, 결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였다.¹⁶⁾

- 12) 일본은 1876년 8월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을 체결하고 10월 14일 이를 공포하는 것과 동시에, 太政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의 이름으로 쓰시마인에게 한정되었던 무역의 특권을 폐지하고 일반에게도 부산으로 도항하여 통상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포고하였다(奥平武彦(1937)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朝鮮社會法制史研究』,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文集, p.40).
- 13) 당시 개항장 내 외국인 거주지는 ‘거류지’ 또는 ‘조계지’로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거류지’는 일본 측이 주장한 명칭이었고, ‘조계지’는 조선 측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명칭이었다. ‘거류지’와 ‘조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 차입의 방법에 있는데, ‘거류지’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유권 교섭을 통한 토지 영차, ‘조계지’는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한 토지 영차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조계’와 ‘거류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손정목(1982) 『개항장·조계제도의 개념과 성격-한반도 개항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일지사 및 전성현(2018) 『‘조계’와 ‘거류지’ 사이-개항장 부산의 일본인 거주지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입장 차이와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62, 한일관계사학회를 참조할 것). 조선 측에서는 ‘조계지’를 설정함으로써 일본인들의 확장을 어느 정도 경계하려 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조계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조계지’와 ‘거류지’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있음을 고려하면서,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관거류지’ 또는 ‘거류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개항장 내 ‘일본인’의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14) 원산 총영사는 “먼저 도래하여 가옥을 건축하고 영업을 하는 자, 20호에 한하여 1호당 금 500엔씩” 보조한다고 하였다. 이 규칙의 제4관에 의하면 보조금은 1881년까지는 무이자 거치식이었고 1882년 1월부터는 연 5부의 이자로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원산으로 일본인을 끌어 들이려는 목적이었지만, 당시 원산의 일본인 인구는 관리를 포함하여 200여명에 불과했기에 보조금으로 책정한 금액이 남을 정도였다(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p.13-14).
- 15) 향회의는 원산 개항 직후인 7월 영사관내 사무소를 두고 의원 10명으로 시작되었다.

<1880년 7월 향회의 초기 의원>

성명	상호	성명	상호
高橋平格	大倉組	西田東輔	共同社
十菱常七	池田組	龜井一郎	吉見屋
高木榮藏	立新商會	宇都宮綱條	第一銀行
榑茂夫	三菱支店	谷田富吉郎	住友支店
慶田常治	慶田組	大塚榮四郎	三好社

* 출처 : 元山府廳 編(1936) 『元山府史年表』, 元山府, p.4.

- 16)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p.21-22.

2. 근대 무역의 확대

<표 1> 조선 연평균 무역총액 및 부산, 원산, 인천의 비중(1880~1896)

(단위: 円)

연도	연평균 무역총액	부산의 비중		
		합계	수출	수입
1880~1882	1,873,353	1,273,746(68.0)	-	-
1883~1885	2,221,579	854,919(38.5)	388,582(59.8)	466,337(29.7)
1886~1888	3,504,116	903,979(25.8)	327,075(45.1)	576,904(20.8)
1889~1891	7,171,082	2,675,904(37.3)	1,440,396(53.0)	1,235,508(27.7)
1892~1894	7,306,605	2,073,581(28.4)	1,113,137(44.0)	960,444(20.1)
1895~1896	10,917,315	3,474,272(31.8)	1,732,398(48.1)	17,741,874(23.8)
원산의 비중				
1880~1882		599,607(32.0)	-	-
1883~1885		368,166(16.6)	80,141(12.3)	288,025(18.3)
1886~1888		831,355(23.7)	101,038(13.9)	730,317(26.3)
1889~1891		907,910(12.7)	199,212(7.3)	708,698(15.9)
1892~1894		1,125,486(15.4)	353,713(14.0)	771,773(16.2)
1895~1896		1,761,841(16.1)	358,782(10.0)	1,403,059(19.2)
인천의 비중				
1880~1882		-	-	-
1883~1885		998,494(44.9)	181,297(27.9)	817,197(52.0)
1886~1888		1,768,782(50.5)	297,313(41.0)	1,471,469(53.0)
1889~1891		3,587,268(50.0)	1,077,280(39.7)	2,509,988(56.4)
1892~1894		4,107,538(56.2)	1,065,815(42.1)	3,041,723(63.7)
1895~1896		5,681,202(52.0)	1,514,068(42.0)	4,167,134(57.0)

* 출처 : 1880~1년은 鹽川一大郎(1895) 『朝鮮通商事情』, 八尾書店, p.39, 1882~3년 및 1894~6년은 『英國領事館報告書』, 1884~1893년은 『統監府統計年報』와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이헌창(1985) 『韓國開港期の 商品流通과 市場圈』, 『經濟史學』9호, 경제사학회, p.125 <표 1>에서 발췌하여 재인용).

** ()는 %.

원산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개항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산 일본인들의 상업 활동은 부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원산 개항 당시 이곳으로 이주한 일본인은 일본에서 바로 도항하는 사람보다 부산에서 신 개항장의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¹⁷⁾ 원산의 일본영사는 이주한 일본인들이 정착하여 원활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보조 정책으로 특권을 보장해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원산에는 조선인 상인들, 이른바 의주의 만상과 개성의 송상도 몰려들었다.¹⁸⁾ 만상은 조선말까지 중강후시, 책문후시 등의 국경 무역을 하던 상인이며 송상은 개성의 인삼상인들이다. 특히 만상은 원산에서 명태를 일본선박으로 운반시키고 부산에서 판매하여 거금을 모았다. 평안도의 조선 상인들도 원산으로 서서히 모여들어 일본 상인과 경쟁을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 상인들은 1881년 12월 상법회의소를 설립하여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원산 상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였다.¹⁹⁾

17) 이와 관련해서는 본 논문 III장 3절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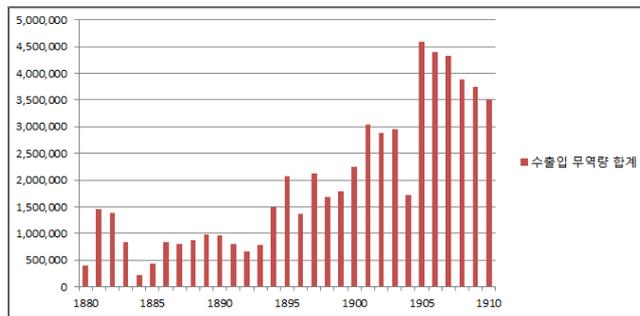
18) 김용욱(1976) 『한국개항사』, 서문당, pp.117-118.

<표 2> 원산 개항 이후 연도별 무역액(1880~1910)

(단위 ; 円)

연도	수이출	수이입	합계	연도	수이출	수이입	합계
1880	135,880	268,011	403,891	1896	328,836	1,036,939	1,365,775
1881	728,438	728,252	1,456,690	1897	571,849	1,559,117	2,130,966
1882	724,832	664,375	1,389,207	1898	245,135	1,433,000	1,678,135
1883	492,039	352,661	844,700	1899	571,137	1,220,381	1,791,518
1884	62,168	152,768	214,936	1900	814,183	1,442,022	2,256,205
1885	53,825	386,201	440,026	1901	946,865	2,089,158	3,036,023
1886	83,645	753,447	837,092	1902	1,005,161	1,880,224	2,885,385
1887	98,249	703,508	801,757	1903	773,548	2,185,781	2,959,329
1888	121,221	745,902	867,123	1904	651,648	1,064,324	1,715,972
1889	214,897	759,158	974,055	1905	645,017	3,954,785	4,599,802
1890	216,586	742,080	958,666	1906	982,982	3,416,635	4,399,617
1891	166,153	635,936	802,089	1907	1,228,630	3,100,720	4,329,350
1892	112,351	552,717	665,068	1908	1,002,548	2,884,813	3,887,361
1893	179,029	614,947	793,976	1909	1,054,669	2,688,691	3,743,360
1894	350,533	1,131,591	1,482,124	1910	1,019,301	2,503,092	3,522,393
1895	388,727	1,676,413	2,065,140				

* 출처 : 1880~1883년은 外務省記録局編, 『通商集編』, 元山港之部를, 1884~1910년은 元山府(1926) 『(日本海の商港) 元山』, pp.94-96를 참고하였다.



<그림 2> 원산항 무역의 추이

<표 2>는 원산 개항이후 1910년 병합 전까지 원산항의 연도별 무역액이다. 표에 의하면 원산항 일본인 거류지의 무역량은 개항 다음해인 1881년 수이출입 합계 1,456,690엔으로, 개항되던 해인 1880년 403,891엔 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새로운 개항장에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각지에서 상인들이 몰려온 결과이다. 그러나 원산의 무역액은 얼마 되지 않아 1883년 조선 최대의 소비지를 배후에 둔 인천의 개항으로 감소한다. 인천이 개항되던 1883년 원산의 무역량은 844,700엔이고, 그 다음해에는 더욱 더 급감하여 원산이 개항되던 해보다 적은 무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1885년부터 조금씩 안정되어 상승하고는 있지만 급증하지는 못하였다.

19)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33.

1889년 함경도 감사 조병식이 포고한 방곡령은 원산 일본 상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 무렵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을 벗어나 내지 행상이 가능하였다.²⁰⁾ 따라서 이들은 산지에 직접 가서 곡물을 구입해 개항장으로 운반하는 등 곡물유통 과정에까지 이권을 확대해 나갔다. 그럴수록 기존의 곡물 매입과 개항장으로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던 조선 상인들의 상권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으로의 곡물 수출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반동으로 국내 곡가도 등귀하였다.²¹⁾ 조선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에 각 지방관들은 관할지역 내 곡물 유통을 막고 민중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방곡령을 실시하게 되었다.

원산이 속한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는 원래 농산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으며 1881년 이래 계속된 흉작 때문에 그 부족분을 경상도로부터 부산항을 통해 들여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영사는 일본 상인에게 필요 이상의 미곡류를 사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럼에도 일본 상인은 청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곡류를 매점하고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특히 당시 계속 흉작이었던 쌀 대신 대두에 대한 매점과 수출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표 3>에 따르면 1887년부터 원산 최대 수출품이 대두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원산에서의 이러한 일본 상인의 위법행위로 함경도에서는 방곡령을 포고하기에 이르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방곡령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인들은 곡류 무역을 포기하고 대신 정어리나 명태 등 동해안의 수산물 거래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들은 나중에 방곡령이 철폐된 후 조선정부가 방곡령 시행 1개월 전 통고 조항을 어겨 손해를 보았다며 조선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²²⁾

1894년에는 청일전쟁의 특수를 맞이하여 1,482,124엔, 1895년에는 2,065,140엔의 무역량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1893년의 793,976엔보다 2~3배 증가한 것이었다. 원산은 청일전쟁 당시 策源地의 역할을 하였다. 어용선을 이용하여 군대가 입항하였고 원산거류민회에서는 군수품 및 부대 수송을 도맡았다. 또한 조선말을 할 수 있는 일본인은 모두 통역으로 동원되었다.²³⁾ 이때 청국 상인이 본국으로 인양되는 바람에 일본 상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군대의 주둔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음식점, 소매업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원산 상권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²⁴⁾

20) 일본인들의 간행이정은 1882년 ‘제물포조약’과 함께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속약’ 제1관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을 (중래 10리에서)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로 확장하고, 2년 후 다시 100리로 한다.’에 따라 확장되었다(『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7월 17일). 간행이정의 확장과 함께 외국상인의 개항장 밖으로의 행상 또한 가능해졌다. 1882년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에서는 여행증명서를 휴대한 청국인에게 행상을 인정하였고(『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제4관 6조에 통상지역에서 100리 이내의 지방 혹은 양국이 의정한 경계 내에서는 여행증명서 없이, 100리 밖은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0월 27일). 일본과는 조선 내지 행상과 관련하여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조일통상장정’ 42관의 최혜국 규정에 따라 영국과 마찬가지로 개항장 밖 조선 내지 행상이 가능하게 되었다(『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6월 22일).

21) 하원호(1985) 『개항장 방곡령실시의 원인에 관한 연구(하)』, 『한국사연구』 50·51, 한국사연구회, p.145.

22) 김용욱(1976) 『한국개항사』, 서문당, pp.118-120.

23)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p.204-205.

<표 3> 원산항 수출입 상품의 구성(1881~1905)

(단위: %)

연도	수출품			수입품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881	금 (55.5)	우피(21.4)	대두(4.3)	금건(52.7)	한랭사(23.2)	동 (3.2)
1882	" (65.8)	" (14.2)	" (3.1)	" (62.8)	" (21.5)	염료(5.8)
1883	" (70.8)	" (12.5)	" (7.2)	" (46.8)	" (32.0)	" (6.5)
1884	" (54.3)	" (19.2)	" (8.3)	" (14.9)	" (14.1)	" (4.5)
1885	우피(93.9)	사향(2.1)		" (54.9)	米(26.9)	한랭사(8.3)
1886	" (94.3)	魚 (2.7)	" (1.0)	" (49.2)	" (36.8)	" (3.3)
1887	대두(44.4)	우피(37.8)	魚 (8.0)	" (65.9)	綾織(5.8)	" (4.7)
1888	" (70.8)	" (17.3)	가축(6.8)	" (55.8)	견포(7.0)	" (6.9)
1889	" (64.8)	魚 (17.1)	우피(15.4)	" (53.9)	한랭사(6.0)	차코넛(4.6)
1890	" (78.2)	우피(15.9)	魚 (1.6)	" (52.9)	" (5.4)	견포(5.0)
1891	" (33.3)	" (29.7)	" (27.5)	" (51.0)	견포(8.0)	면화(5.3)
1892	우피(57.3)	대두(19.0)	" (8.5)	" (50.3)	면화(7.0)	견포(6.0)
1893	대두(37.8)	우피(28.1)	" (20.1)	" (45.8)	" (9.3)	" (6.2)
1894	금 (87.9)	대두(24.0)	건멸치(10.9)	생금건(38.7)	백미(11.1)	면화(7.4)
1899	" (63.9)	" (14.4)	우피(6.8)	백목면日(26.7)	생금건英(17.5)	" (6.8)
1900	" (63.6)	" (10.1)	고래고기(8.0)	" (38.7)	" (11.5)	" (8.6)
1901	" (63.8)	" (12.1)	" (8.3)	" (21.1)	" (19.9)	표백금건(6.0)
1902	" (57.6)	" (16.3)	生牛 (7.7)	생금건英(22.0)	백목면日(20.2)	표백금건(9.7)
1903	" (65.4)	고래(9.4)	우피 (6.8)	" (19.6)	粟(19.3)	백목면日(13.4)
1904	" (41.6)	" (21.2)	" (15.4)	백목면日(17.9)	금건日(3.7)	米 (3.6)
1905	대두(49.4)	우피(12.8)	魚(12.0)	백목면(23.7)	생금건(9.2)	곡류(6.8)

* 출처 : 1881~2, 1884년은 『通商彙編』, 元山港之部. 1883년은 『英國領事館報告書』. 1885~1893년은 『中國海關年報』附錄 『朝鮮海關年報』. 1899~1904년은 『通商彙纂』 각년판. 1905년은 統監府財政監査廳, 『韓國各港貿易概況』, 1907. (이헌창(1985) 『韓國開港期의 商品流通과 市場圈』, 『經濟史學』 9, 경제사학회, pp.148-151쪽 <표 9>에서 발췌하여 재인용)

** 비고 : 日은 일본제품, 英은 영국제품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항 당시 원산의 주요 수출품은 금이었고 수입품은 여느 개항장과 마찬가지로 면직물류였다. 원산 부근 장진군에서는 다량의 사금이 채굴되었는데²⁵⁾ 많은 일본인들이 금 거래를 위해 원산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전까지 원산의 상권은 청국 상인들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산 무역에서 청국 상인의 수는 일본인의 10분의 1이었지만 무역 거래액은 비등하였다. 실제 일본 상인에 비해 청국 상인의 수입이 평균 10배 더 많았다.²⁶⁾ 우선 원산의 최대 수출품인 금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청상들이었고 최대 수입품인 면직물 또한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상해에서 나가사키와 부산을 거치거나, 또는 상해에서 인천을 통해 원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청국 상인들이 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즉 원산은 일본에 의해 개항이 되고 일본인 거류지가 가장 먼저 설정되었지만 청국을 비롯한 각국의 상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청일전쟁이 발

24)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206.

25)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49.

26) 김용욱(1976) 『한국개항사』, 서문당, p.120.

말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원산의 청국 상인의 수가 줄어든 것과 함께 상해 방면에서 수입되던 영국산 면직물류가 점점 일본산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사금의 감정이 현장에서 가능하게 되자 비로소 일본 상인들이 원산 무역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²⁷⁾

한 번 더 원산의 무역량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러일전쟁의 발발이었다. 특히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의 각 개항장은 모두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지만 전쟁이 있던 해에는 특히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1905년 원산 무역액을 보면 수출은 전년과 비교하여 거의 정체상태에 있지만 수입은 대폭 증가하였다.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항로가 폐쇄되거나 무역을 위한 선박이 군수품 등을 운반하는 어용선으로 이용되어 운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 원산의 최대 수출품인 대두의 흥작과 군역 징발로 인해 지방 생산력 및 사금의 채취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²⁸⁾

Ⅲ. 원산 이주 일본 상인의 특징

1880년 원산이 개항되면서 조선 전체의 일본인 수가 늘어났다. 원산 일본인은 대부분 부산을 거쳐 이주하거나 부산에서 어느 정도 조선에 적응한 일본인들이 재이주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원산 개항 이후인 1881년에는 부산의 일본인 인구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⁹⁾

1. 원산의 일본인 인구변화 및 출신지별 구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산은 동해의 풍부한 수산물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함흥평야의 농산물과 강원도의 광물 등을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원산 개항 직후 일본 영사는 일본 상인들이 무역 및 상업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거류지 내 택지를 싼 값에 대여하거나 저리 대부를 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안했지만 일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다. 개항되던 해인 1880년 원산의 일본인 인구는 235명이었고 그 가운데 상인은 68명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인천의 개항과 경성의 개시에 의해 1884년에는 173명으로 감소하게 된다.³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조선의 중심지인 경인지역에서의 이권 선점을 목적으로 한 이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원산 일본인 사회에서는 거류민의 경인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첫째는 경인지역이 일본과 비슷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당시 함경도 일대의 농작물 생육 부

27) 김용욱(1976) 『한국개항사』, 서문당, p.121.

28)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371.

29) 부산의 일본인 인구수는 1879년 700명에서 1880년 2,066명으로 증가(相澤仁助 編(1905) 『韓國二大港實勢』, p.281.), 1881년 1,925명, 1882년 1,519명(釜山商業會議所(1912) 『釜山要覽』, p.8)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소 원인은 원산의 개항과 임오군란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0)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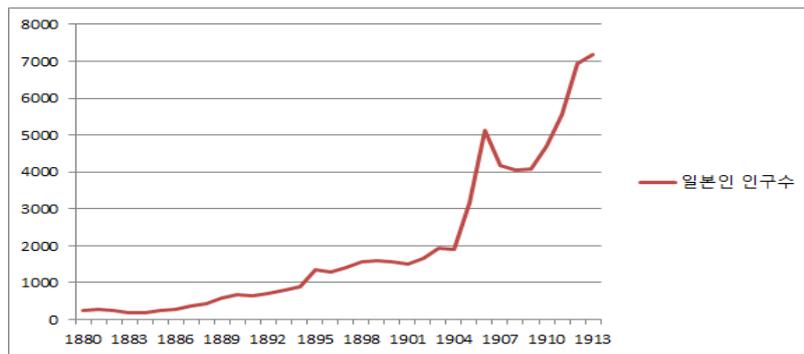
진과 함께 원산에 천연두가 유행하였는데, 이것이 인천, 경성 개항과 맞물렸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였다.³¹⁾ 그러나 여느 개항장과 마찬가지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1910년 병합을 기점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원산 무역량의 증감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다.

<표 4> 원산의 일본인 호구 및 인구의 변화(1880~1913)

(단위 : 명)

연도	호수	인구수	연도	호수	인구수
1880		235	1897	326	1,423
1881		281	1898	347	1,560
1882		260	1899	366	1,600
1883		199	1900	355	1,578
1884	62	173	1901	354	1,504
1885	73	235	1902	395	1,668
1886	81	279	1903	430	1,946
1887	82	374	1904	467	1,895
1888	94	433	1905	693	3,150
1889	114	598	1906	1,046	5,120
1890	143	680	1907	1,028	4,161
1891	140	655	1908	1,219	4,055
1892	174	705	1909	1,312	4,096
1893	185	795	1910	1,320	4,696
1894	202	903	1911	1,372	5,564
1895	271	1,362	1912	1,689	6,936
1896	310	1,299	1913	1,765	7,166

* 출처 : 高尾白浦(1922) 『元山港』, 東書店, pp.64-67.



<그림 3> 원산 거주 일본인 인구수의 변화

원산 거류 일본인의 출신지별 구성은 어떠했을까. 부산의 경우, 초기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가사키와 야마구치 등 서일본 지역 출신 일본인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31)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p.55.

가 점차 동일본 지역 출신자들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³²⁾ 아래 <표 5>에 따르면 1895년 무렵 원산 거류 일본인들은 나가사키를 포함한 규슈 지방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야마구치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히로시마, 오사카, 효고, 교토, 와카야마 등 서일본 지역 출신자들도 많아, 출신지는 일본 전 지역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원산 거류 일본인 출신지별 표(1895.12.)

출신지	인구수	출신지	인구수	출신지	인구수	출신지	인구수
山口	353	鹿兒島	39	滋賀	2	兵庫	14
長崎	435	岡山	7	福井	1	愛知	14
大分	66	東京	22	高知	5	宮崎	5
福岡	66	京都	24	新瀉	2	德島	4
廣島	28	佐賀	42	富山	1	千葉	2
大阪	61	埼玉	1	島根	2	愛媛	29
熊本	70	茨城	8	石川	15	和歌山	6
奈良	1	鳥取	5	沖繩	1	北海道	1
神奈川	2	三重	3	香川	16	岐阜	1
静岡	5					합계	1,362

* 출처 : 『通商彙纂』, 1895.

2. 일본인의 종사업종

다음으로 원산 거류 일본인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난 시점에 원산 거류 일본인들이 종사한 업종은 <표 6>과 같다.

<표 6> 원산 거류 일본인의 종사업종(1895.12.)

직종	인원수	직종	인원수	직종	인원수	직종	인원수
무역	23	장신구	36	곡물	10	주방잡화	12
도기	7	잡화	35	직물	27	석유	32
재목	2	철물상	12	중매	50	보험중개인	4
약재료상	1	정육점	2	은행업	2	조운업	3
선박문옥	4	연조업	12	과자업	14	酒業	36
장유업	27	소금영업	34	賣藥	2	산과	2
건축청부	7	어업	8	목욕	1	초밥집	3
武力細工	1	석공	5	목수	45	미장이	6
이발	5	提燈職	1	표구사	1	사진사	1
의사	1	대장장이	8	재봉	2	짐수레꾼	3
짐꾼	140	解船頭	32	안마사	2	미용	6
藝妓	12	요리점	4	야채	10	생선가게	6
날품팔이	8	떡	12	음식점	10	당구	1
여관	2						

* 출처 : 『通商彙纂』, 1895.

32) 이가연(2017)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러일전쟁 이전 이후 상층자본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p.46.

일반 노동을 제외하고 중매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장신구, 주방잡화 등 잡화를 취급하는 사람이 많았다. 목수가 4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염업 및 주조업과 무역도 상위를 기록하였다. 원산은 수질이 청주 양조에 적당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부터 주조업이 성행하였고 원산 인근 영흥군과 문주군은 해수 농도가 높아서 수백 년 전부터 조선 유수의 염전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었다.³³⁾ 또한 선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원산 일본인들이 종사하던 업종은 무역거래에서부터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일반 소매상까지 총 망라되어 있었고, 금융기관 및 상업회의소 등의 기관도 일찍부터 정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산 및 뒤에 개항한 인천보다 자본의 규모가 작았는데, 이는 상인의 대부분이 영세하였다는 점, 그리고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거래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육로가 발달하지 못한 대신 해운이 발달하여 원산-부산, 원산-용기, 원산-영흥, 원산-청진, 원산-시모노세키 등으로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중개무역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³⁴⁾

3. 유력 일본 상인

1897년 일본 농상무성 상공국에서 발행한 『在外本邦人店舖調査書-農商務省商工局臨時報告』第五冊에는 원산의 유력 일본 상점 10곳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우선회사, 제일국립은행, 일한무역상사 등 대기업의 지점을 제외한 독립상점은 5~6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표 7> 참고).

<표 7> 원산 유력 일본인 지점 및 개인상점(1897)

직종	출신지	상호(또는 대표자)
무역 겸 잡화판매	-	日印貿易合資會社 원산출장소
무역 겸 잡화판매	-	共同尾白株式會社
무역 겸 잡화판매	-	日韓貿易商社
무역 겸 조운업	山口	太田支店
무역 겸 잡화판매	長崎	西島留藏
무역 겸 잡화판매	對馬	田口吉次郎
무역상	大阪	五百井長商店
무역상	長崎	稻松支店
무역상	大阪	小倉支店
무역 겸 잡화판매	東京	奥村松次郎

* 출처 : 『在外本邦人店舖調査書-農商務省商工局臨時報告』, 第五冊, 1897.

** 일본우선회사 부산지점 원산출장소, 제일국립은행 부산지점 원산출장소, 나가사키십팔국립은행 원산지점 등도 설치되어 있었다.

33) 元山府(1926) 『(日本海の商港) 元山』, p.189, p.226.

34) 元山商業會議所(1914) 『元山案内』, pp.48-49.

1905년 일본 외무성 기록 『農工商漁業等ニ従事スル在外本邦人ノ營業狀態取調一件 第一卷』에 의하면 원산에는 연 거래액 1만 엔 이상의 유력 일본인 상점이 총 38개가 있으며, 그 가운데 자본금 규모가 5천 엔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0명이었다.³⁵⁾ <표 8>은 이 10명과 1905년 발간된 『在韓人士名鑑』의 원산 유력 일본상인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1905년 원산의 일본인 인구 3,150명 가운데 0.47%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원산 개항 이후 러일전쟁 전 시기까지 원산의 상층자본가였다.

<표 8> 원산 유력 일본 상인의 출신지와 업종

번호	이름	출신지	도항 및 조선 내 이동 경로	주업종	상업 회의소	거류 민회	비고
1	田口吉次郎	長崎	원산	조운업	○	○	1866년 쓰시마 이즈하라 출생. 가나가와 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계에 투신.
2	太田儀三	山口	원산(1885)	무역업	○	○	1850년 야마구치 출생. 1885년 봄 소유한 범선으로 원산으로 이주하여 무역, 잡화상을 경영. 거류지 내 많은 토지 가옥을 매입. 1902년 오사카상선회사 원산 대리점을 경영, 원산 제일의 부동산 소유.
3	佐藤直太郎	鹿兒島	부산→원산	무역업	○	○	1859년 가고시마 출생. 부산으로 도항하여 일한무역상사 부산지점에서 근무. 나중에 원산지점 지배인이 되어 이주.
4	西島留藏	長崎	원산(1890)	무역업	○	○	1856년 나가사키 출생. 일찍이 나가사키 시 모리타니[森谷]상점에 입사하여 상업에 종사. 1890년 원산지점 개설과 함께 도항. 나중에 상점을 인수하여 독립상점을 열고 무역업, 환전업, 호텔업, 토목건축청부업 등을 경영.
5	龜谷愛介(助)	長崎	부산(1877)→원산(1895)	무역업	○	○	1864년 쓰시마 이즈하라 출생. 1877년 부산으로 도항하여 무역에 종사. 1895년 원산으로 이주하여 무역업.
6	龜谷潔之	長崎	부산(1884)→원산(1896)	무역업	○	○	1870년 쓰시마 이즈하라 출생. 1884년 부산으로 건너와 중매상을 경영하다가 오이케[大池]상점에 입사하여 무역에 종사. 1896년 오이케상점 원산지점 정리를 위해 이주. 1899년 독립상점 개설. 상업회의소 회두 역임.
7	木本芳轉	山口	부산(1889)→원산(1889)	무역업	○	○	1863년 야마구치 출생. 1889년 봄 부산으로 도항하여 동년 8월 일한무역상사 원산지점주임으로서 이주. 1897년 독립무역상을 개시. 부산의 유력상인 木本晋治의 동생.
8	小林儀三郎	長崎		무역업			나가사키 출신.

35)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10074448300, 農工商漁業等ニ従事スル在外本邦人ノ營業狀態取調一件 第一卷(3-3-7-25_001, 外務省外交史料館)』, 1905.

9	河野省三郎	愛媛	부산(1879)→ 원산	무역업	○	○	1864년 에히메 출생. 고베 이케다[池田貫兵衛]상점에 입사, 이후 1879년 부산으로 도항, 원산지점 주임으로 전근. 1885년 원산지점 폐쇄로 독립상점 경영. 거류민총대, 상업회의소 회두 역임.
10	渡邊半藏	山口	원산(1881)	잡화상	○	○	1881년 원산으로 도항하여 某 관아에 용달. 적수공권으로 도항하여 성공한 자.
11	岩田梅之助	和歌山	부산(1887)→ 원산(1890)	무역업	○	○	1868년 와카야마 출생. 오사카에서 수학한 후 오사카 이오이[五百井]상점에 입사하여 무역업에 종사. 1887년 부산 지점원으로 도항, 1890년 원산지점지배인으로 전근. 이후 원산 거류민회 회장, 상업회의소 회두 역임.
12	中村國太郎	長崎	부산(1878)→ 원산(1881)	무역업	○	○	나가사키 잇키 출신. 1878년 부산으로 도항, 2년간 상업 견습. 1881년 원산으로 이주, 무역을 시작.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지점 설치.
13	横山喜太郎	長崎	부산(1884)→ 원산(1892)	무역업	○	○	1865년 나가사키 잇키 출생. 일찍이 상업에 뜻을 두고 부산으로 도항. 모 상점에 입사한 후, 곡물상을 경영. 1894년 원산으로 이주하여 독립 무역상 겸 잡화상 경영. 製綿회사 경영.
14	寺本幸太郎	京都	원산	무역업	○	○	교토 출신 교사. 오사카로 나아가 조선 무역상 이오이상점에 입사, 원산지점원으로 도항. 1902년부터 독립 무역상으로 활동.
15	吉田秀次郎	熊本	인천(1897)→ 원산(1902)	조운업	○	○	1872년 구마모토 출생. 1897년 도항하여 인천 호리[堀]상회에 입사, 1902년 원산지점장으로 이주. 북선항로 개발에 열중.

* 출처 : 위 표는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10074448300, 農工商漁業等ニ従事スル在外本邦人ノ營業狀態取調一件 第一卷(3-3-7-25_001, 外務省外交史料館)』(1905)에서 연 거래액 1만 엔 이상, 자본금 5천 엔 이상의 자영업자(1~10)들과 中田孝之介(1905) 『在韓人士名鑑』, 龍溪書舍, pp.142-154의 원산 유력자(11~15)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전자의 자료에 등장하는 일본인 자본가는 후자의 자료에도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다.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표기하였다.

*** 상업회의소 의원 또는 거류민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은 ‘○’로 표기하였다.

우선, 원산의 유력 상인들은 부산을 거쳐 원산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신지는 나가사키현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쓰시마와 인근 섬인 잇키 출신자가 대다수였다. 부산 개항 이전부터 왜관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쓰시마인들은 개항 이후에도 가장 먼저 부산으로 이주하여 상점을 경영하였다. 이러한 쓰시마인들은 일본 내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상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산이 개항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빨리 원산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의 개항 전 이력을 보면, 상업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 또는 교직에 종사한 사람도 있지만(1, 14), 대부분은 일본에서 상업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다.

둘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타 기조[太田儀三]는 본인이 소유한 범선으로 원산으로 바로 도항하여 무역과 잡화상을 경영하면서 거류지 내에서 일찍부터 부동산업을 시작하고 부를 축적하였다. 니시지마 류조[西島留藏]는 무역업, 환전업, 호텔업, 토목건축청부업 등을 경영하였고, 요코야마 기타로[横山喜太郎]는 무역과 잡화상점을 경영하였다. 이 당시 조선으로 도항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무역업과 잡화상 또는 중매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을 축적한 후에는 고리대업 또는 부동산업 등을 하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이는 원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들은 상업회의소 또는 거류민회 등의 공적 조직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권을 독점하였다.

셋째, 처음부터 독립상점을 개설한 사람이 드물었다. 가메타니[龜谷潔之]는 부산의 최상층 자본가인 오이케 츠스케[大池忠助]의 상점에 들어가 무역에 종사하였으며, 1896년 오이케상회 원산지점의 정리를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한 후 독립상점을 개설하였다. 기모토 요시히로[木本芳轉]는 1889년 부산으로 도항하여 일한무역상사 원산지점 주임이 되어 이곳으로 이주, 1897년에 독립상점을 개시하였고 사토 나오타로[佐藤直太郎] 또한 일한무역상사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원산지점 지배인이 되어 이주하였다. 이와다 우메노스케[岩田梅之助]는 오사카의 이오이[五百井]상점의 부산 지점원으로 1887년 도항하고 1890년 다시 원산지점 지배인으로 이주하였으며, 데라모토 고타로[寺本幸太郎] 또한 이 상점의 원산지점원으로 근무하다가 1902년에 이르러 독립무역상으로 활동하였다.

넷째, 이들은 대부분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거나, 사업의 계승 등을 통해 정주의 지를³⁶⁾ 보이고 있었다. 무역업을 경영하던 요코야마 기타로는 1920년대 이후 굴양식업으로 전업하여 1942년 현재 요코야마 겐지[横山源二]와 함께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³⁷⁾ 사토 나오타로는 1935년 무렵까지,³⁸⁾ 다구치 요시지로[田口吉次郎]는 1941년까지³⁹⁾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시다 히데지로의 아들 레이타[吉田令太]는 인천으로 이주한 부친을 대신하여 원산에서 船具, 철물, 鑛油 등을 판매하는 등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계승하였다.⁴⁰⁾ 데라모토 고타로[寺本幸太郎] 또한 1926년 건강이 좋지 못하였을 때 동생인 덴노스케[寺本傳之助]에게 사업을 물려주었으며,⁴¹⁾ 기모토 요시히로[木本芳轉]의 장남 요시스케[木本芳介]와 데릴사위 시로[木本四郎]는 1935년 요시히로 사후 원산에서 그대로 가업을 이었다.⁴²⁾ 가메타니 아이스케[龜谷愛介]의 장남 미요지[龜谷美代治]는 아이스케와 함께 가업을 이

36) 인간의 삶이 지역성과 결부되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 지역과의 사이에 심적 결합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정주의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주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영위한다는 ‘정주’의 좁은 의미를 더 확장하여, 재조일본인들이 지속적 거주 의지를 가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심리적 소속감 또는 주인의식, 지역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37) 中村資良(1942년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38) 합자회사 蘆田의 대주주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中村資良(1935년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39) 주식회사 大陸護謨工業의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中村資良(1941년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40) 畑本逸平(1927) 『咸鏡南道事業と人物名鑑』, 咸南新報社, p.19.

41) 畑本逸平(1927) 『咸鏡南道事業と人物名鑑』, 咸南新報社, p.80.

42)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編(1935) 『朝鮮功勞者銘鑑』, 朝鮮總督府, p.688.

끌어 나갔다.⁴³⁾

원산은 강원도의 북부 함경도의 남부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지만 인천과 같이 큰 소비지를 배후에 둔 것도 아니었고, 부산처럼 대일 무역의 기반 시설이 일찍부터 갖춰져 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일본인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이 원산을 개항시킨 목적이 상항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군사 방어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 상점을 운영하려는 일본 상인들이 선불리 진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 7>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산에 본점을 두고 원산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기에 원산의 유력 일본상인들은 부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본점에서 지점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산과 원산을 오가는 연안항로가 일찍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IV. 맺음말

조선에서 두 번째로 개항된 원산은 동해안의 유일한 양항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함흥평야의 농산물과 강원도의 광물을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그러나 원산의 개항은 군사적 목적이 컸고, 기후와 지형 또한 낯선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일본인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개항 직후, 부산에 있던 일부 상인 또는 상점의 지점원으로 원산으로 이주하였지만 인천이 개항되고 원산의 일본인 인구는 다시 감소하였다. 청일전쟁 발발 전까지 청국 상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에 그리 좋은 조건도 아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채원지 역할을 하면서 비로소 원산의 일본인들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원산의 일본인 거류지에는 그들이 조선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관공서와 금융기관, 자치단체가 일찍부터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개항 초기 이주 일본인들은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지역의 유력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이른바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일본인들에게는 몇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도항 이전부터 상업에 관계하면서 도항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정착 자금을 마련하여 도항하였다. 둘째, 처음부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무역 또는 중매상 등 무역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높았다. 셋째,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무역업과 함께 중매업, 잡화상 등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나아가 고리대업 또는 밀무역, 부동산업까지 진출하였다. 넷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군부에 적극 협력하면서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상층자본가로서의 지위를 공고이하기 위해 동업조합은 물론 상업회의소를 구성하여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거류민회에도 진출하여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항장 내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다. 여섯째, 이들은 ‘성공’한 후에도 조선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후계자를 내세워 사업을 유지·확장하거나,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조선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조선에 정주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개항기 이주 일본 상인

43)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編(1935) 『朝鮮功勞者銘鑑』, 朝鮮總督府, pp.526-527.

은 ‘폴뿌리 식민자’의 시작이자 그 전형이었다.

참고문헌

- 『統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通商彙編』
『通商彙纂』
『조선왕조실록』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1964), 『舊韓末條約彙纂』上卷, p.10.
김용욱(1976), 『한국개항사』, 서문당, pp.117-121.
오미일(2008), 『개항(장)과 이주상인-개항장도시 로컬리티의 형성과 기원』,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p.44.
하원호(1985), 『개항장 방곡령실시의 원인에 관한 연구(하)』, 『한국사연구』 50·51, 한국사연구회, p.145.
高尾白浦(1922), 『元山港』, 東書店, p.44.
高尾新右衛門 編(1916), 『元山發展史』, 啓文社, pp.13-206.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編(1935), 『朝鮮功勞者銘鑑』, 朝鮮總督府, p.526-688.
釜山商業會議所(1912), 『釜山要覽』, 釜山商業會議所, p.8.
相澤仁助 編(1905), 『韓國二大港實勢』, 日韓昌文社, p.281.
奧平武彦(1937),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朝鮮社會法制史研究』,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文集, p.40-53.
元山府(1926), 『(日本海の商港) 元山』, 啓文社, pp.22-226.
元山府廳 編(1936), 『元山府史年表』, 元山府, p.2-4.
元山商業會議所(1914), 『元山案内』, 元山商業會議所, pp.48-49.
畑本逸平(1927), 『咸鏡南道事業と人物名鑑』, 咸南新報社, p.19-80.
中村資良(1935, 1941, 1942년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中田孝之介(1905), 『在韓人士名鑑』, 龍溪書舍, pp.142-154.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10074448300, 農工商漁業等ニ從事スル在外本邦人ノ營業狀態取調一件 第一卷(3-3-7-25_001, 外務省外交史料館)』(1905).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원산, 개항, 개항장, 재조일본인, 일본상인, 이주, 식민자 Wonsan, Open a port, An open port areas, Japanese settler in Chosun, Japanese merchant, Immigration, Colonizer
<p style="text-align: center;">The open port of Wonsan and the immigration of Japanese merchants</p> <p style="text-align: right;">Lee, Ga-Yeon</p> <p>Wonsan was the second open port in Chosun. As a good port of Donghae, were able to obtain fish products, and it was a key point where agricultural products from Hamheung Plain and minerals from Gangwon Province could be traded at once.</p> <p>In the early days of Wonsan’s opening, few Japanese wanted to move to this place, where the climate and terrain were low. It was not a good condition for the Japanese to grow economically, because as merchants of the Qing Dynasty held commercial power until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However, as Wonsan became a the center of operations in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in Wonsan were able to grow.</p> <p>The open port areas of Wonsan included Japanese residents’zones where lots of public agenc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autonomous bodies and early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a variety of perks to the Japanese immigrants so that they could do economic activities without inconvenience and develop as capitalists in Chosun. Japanese people who developed as upper-class capitalists working in Wonsan had some aspects in common. First, they had already had commercial experiences before getting into the open port areas with thorough plans. Second, some of them who engaged in trading or brokerage business that tended to be very profitable from the onset were more successful. Third, they more often ran trading businesses, brokerage ones and the stores of miscellaneous goods to be a bigger capitalist. Fourth, they acquired rights and interests by actively collaborating with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Third, they set up their networks in order to firmly establish their position as upper-class capitalists by organizing a trade association or a chamber of commerce. Sixth, they got successors to maintain or expand their business keeping in connection with Chosun even after have been successful in the country. They were also willing to settle in Chosun by opening their offices in many places of the country in an effort to diversify their business.</p>	
필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이가연 (한자): 李佳妍 (영문): Lee, Ga-Yeon 국문제목: 개항장 원산과 일본 상인의 이주 영문제목: The open port of Wonsan and the immigration of Japanese merchants 소속: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diet43@hanmail.net
논문작성 일시	투고일 : 2020. 05. 07. 심사일 : 2020. 05. 22. 심사완료일 : 2020. 05. 24.

